

제대로 즐겨보자, 금남로 문화난장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22일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내일 개막...12월 16일까지 대장정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문화난장’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22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12월16일까지 대장정에 들어간다. 같은 기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인근 나눔광장에서는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버스킹공연 ‘음빛고을거리’가 열려 흥겨움을 더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프린지페스티벌은 ‘활활한 변신’을 주제로 첫째~셋째 토요일은 5·18민주광장, 넷째주는 광장을 포함한 금남로 일원에서 오후 2~7시 펼쳐진다.

올해는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광주감동시리즈’는 지역 공연단체가 광주를 소재로 제작한 순수 창작공연이다. ‘입을 위한 몸짓’, ‘활활한 변신’, ‘서석대 바람소리’, ‘인어를 사랑한 해적마담’, ‘피포먼스 성산별곡’ 등 무용을 중심으로 빛, 소리, 연기가 어우러지는 무대다.

코믹요소가 결합한 ‘웃음폭발시리즈’는 5·18광장 내 동형 공연장 ‘프리돌씨어터’에서 열린다.

또 공연단체를 초청한 ‘열정의 버스킹 시리즈’, 광주문화예술단체 무대 ‘아이상설브랜드공연’, 시민

매주 토요일 다채로운 문화행사

총장로상인들 327개 상품 증정

버스킹 ‘음빛고을거리’ 흥겨움 더해

참여프로그램 ‘오매! 기똥찬 시리즈’를 마련했다. 22일 개막행사는 5·18광장, 전일빌딩 앞 등에서 진행된다. 메인 무대인 전일빌딩 앞에서는 오후 2시 무예페스티벌이 열려 눈길을 끈다. 150명이 참여해 무예시범, 팀배틀 등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프리돌씨어터’에서는 오후 2시 피에로풍선마임, 오후 3시30분 ‘코메디 서커스쇼’, ‘벌룬 매직 코믹쇼’가 열려 함께 웃는 시간을 갖는다. 네파매장 앞에서는 공연에 과학을 접목시킨 ‘무중력 무사’가 시민들을 기다린다. 갈 끝에 사람이 서 있는 듯 중력을 무시하는 기발한 연출이 엿보인다. 그밖에 광주MBC 프로그램 ‘문화난장’과 콜라보

레이션으로 꾸리는 ‘열정의 버스킹 시리즈’(5·18기록관 앞, 오후 5~7시)에는 음악밴드 ‘안녕바다’, ‘사운드 박스’가 출연한다.

거리 곳곳에서는 총장로상인회, 시민이 함께 만드는 ‘오매! 기똥찬 광주 시리즈’를 즐길 수 있다. 총장로상가번영회는 개막을 기념해 327개 상품을 체험 참여 관람객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넷째주 토요일에는 ‘프린지 총장로 세일’이 열린다.

매주 토요일 오후 3~6시 열리는 ‘음빛고을거리’ 첫 무대에는 오후 3시 여성3인조 그룹 ‘미켈’이 오른다. 보컬·키보드 지은, 전자바이올린 지아, 유주로 구성된 ‘미켈’은 KBS열린음악회 등에 출연한 실력파 그룹이다.

이어 발라드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 ‘Dubble Clip’, 어쿠스틱 핑커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윤준이 봄에 어울리는 음악을 연주한다.

마지막 공연(오후 5시20분)은 ‘슈퍼스타K’에서 인기를 끈 랩퍼 출신 ‘여우밴드’가 출연한다. ‘여대 앞에 서는 남자’, ‘Bye summer’, ‘음주권장 경음악’ 등을 선보이며 시민들과 함께 음악을 취한다. 문의 프린지페스티벌 062-670-7919, ‘음빛고을거리’ 010-9446-9928. /김용희기자 kimyh@

제 62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 | | |
|---|--|---|
| <심사위원> 여순심(광주여대 교수) 이숙영(목포과학대 교수) | 2 박세현(광주예고3) ◇군무 고등부 ▲금상 1 김은호외 6명(제스트무용학원) ▲은상 2 박세현외 9명(드림무용학원) 3 조윤주의 6명(한빛무용학원) | ▲은상 1 오현재(지오초5) ◇스트릿댄스 독무 고등부 3 ▲금상 1 정현장(광주동성고3) ▲은상 2 양희정(광주송일고3) ▲동상 3 서지원(해룡고3) ◇결합합춤 군무 고등부 ▲금상 1 정세리외 11명(수완고3) ◇결합합춤 독무 초등부 1.2 ▲은상 1 조서지(문화초2) ◇결합합춤 독무 초등부 3.4 ▲은상 2 김민재(건국초4) ▲동상 1 노재희(건국초4) ◇결합합춤 독무 초등부 1.2 ▲금상 1 김다희(성덕중1) ▲은상 3 박지민(신가중2) ▲동상 2 이아현(월봉중1) ◇결합합춤 독무 중등부 3 ▲금상 3 김다소(진흥중3) ▲은상 1 박은서(신가중3) 2 김규희(장덕중3) ◇결합합춤 독무 고등부 1.2 ▲금상 1 한지수(서강고1) ▲은상 2 허예린(운남고2) |
| 현대무용 ◇독무 초등부 3.4 ▲금상 1 박다정(대촌중앙초4) ◇독무 초등부 5.6 ▲은상 1 전율하(광주송원초5) ◇독무 중등부 1.2 ▲금상 2 위성현(광주월곡중1) ▲은상 1 양홍주(광주유리중2) ◇독무 중등부 3 ▲금상 1 김보연(동아여중3) ▲은상 2 김예은(동아여중3) ▲동상 3 한서현(각화중3) ◇독무 고등부 1.2 ▲최고상 8 류인용(송의고2) ▲금상 9 김슬기(광주예고2) 1 조준서(광주예고2) ▲은상 2 박은주(2000년생) 7 박세희(광주예고2) 3 박수빈(광주예고2) ▲동상 4 정지은(광주수피아여고1) 6 정승원(광주송의고2) ◇독무 고등부 3 ▲금상 3 김률의(광주수피아여고3) ▲은상 5 조윤주(광주수피아여고3) 1 김가희(광주예고3) ▲동상 4 김현서(광주예고3) | 실용무용 ◇발리댄스 군무 초등부 ▲은상 1 소예림외 2명(나주초3) ◇발리댄스 독무 초등부 3.4 ▲은상 1 박민지(나주초3) ◇발리댄스 독무 중등부 1.2 ▲동상 1 박현진(금전중1) ◇방송댄스 군무 초등부 ▲은상 1 이나린외 5명(나주초) ◇방송댄스 독무 중등부 1.2 ▲동상 1 홍진(나주중2) ◇힙합 독무 고등부 1.2 ▲금상 1 김연경(대성여고2) ◇일반댄스 독무 고등부 3 ▲은상 1 최지은(해룡고3) ◇재즈댄스 독무 중등부 1.2 ▲은상 1 박혜린(담양여중2) ◇재즈댄스 독무 고등부 1.2 ▲동상 1 유태란(광주예고2) ◇스트릿힙합 독무 고등부 3 ▲금상 1 김민성(광주전자공고3) ◇스트릿댄스 군무 고등부 ▲금상 1 양희정의 13명(무빈업댄스스튜디오) ◇스트릿댄스 독무 초등부 5.6 |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동백이야기’... 김준호 스무번째 개인전 26일까지 갤러리D

필수를 앞두고도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김준호 작가가 ‘김준호 동백이야기’를 주제로 스무번째 개인전을 연다. 20~26일 갤러리D.

사실주의 기법으로 풍경과 정물을 그려온 김 작가는 끊임없이 소재와 재료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죽필(竹筆)로 그린 ‘동백 이야기’ 시리즈를 공개한다.

이 시리즈는 작가가 직접 대나무를 수백 갈래로 쪼개 붓털을 만들어 완성한 선묘화이다. 굵은 필선으로 여인과 동백을 표현하고 채색은 열거하며 선이 주는 느낌을 강조한다. 스케치 형식의 단순한 그림이지만 오랜 시간 공들여 천천히 그린 작품이다.

또 40년간 동백을 그리며 쌓인 내공을 엿볼 수 있는 유화 ‘동백’도 함께 전시한다. 작가는 1975년 처음 동백을 그리기 시작해 현재까지 작품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빨리 피었다 지는 여

느 꽃과는 달리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동백은 그의 예술세계를 대변한다.

붉은 동백과 여인 누드가 어우러진 ‘동백’은 색의 대비가 또렷하다. 검은 배경에 붉은색으로 크게 그린 동백 밑으로 우두커니 앉아 있는 여인은 자연 앞에 연약한 인간을 형상화했다.

특히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기에는 구상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김 작가는 세밀한 묘사로 동백에 입체감을 부여한다. 노란 수술과 붉은 꽃잎의 색채 대비, 빛 방향에 따른 그림자, 털수록 희미하게 표현하는 원근감 등이 특징이다.

광주사범대 미술과를 졸업한 김씨는 광주 일요화기회 지도교수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광주시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목우회에 참여했다. 문의 062-222-8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동백과 동백새’

은빛합주단 발표회

오늘 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은빛합주단(단장·지휘 구영웅) 29차 발표회가 21일 오후 1시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에서 열린다.

지난 2001년 건강타운 회원들로 구성된 은빛합주단은 25인조 오케스트라로 정기연주회와 함께 풍암호수 작은 음악회, 강진 마당 토요일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목포의 눈물’, ‘진도 아리랑’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은빛합주단은 꽃매요양원, 전사랑힐링센터, 성심양로원 등 지역 15곳에서 꾸준히 음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레크리에이션 경연대회에서 광주시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불치의 질병!! 원인을 바로 알면 방법이 보인다!!!

- 본인 또는 부모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찾으시면 길이 보입니다.-



일광스님은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주유하면서 도(道)를 탐구해온 일광스님께서 문득 희롱의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사후세계가 우주 자연의 인과의 법칙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일광스님은 불치환자들의 병의 근원을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불치병으로 평생 명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구제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정보홍수의 시대 바로 알고 노력하면 하늘도 도와줍니다.]

부처님 경전에 인간의 병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① 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의 문제로 생기는 병 ② 귀신으로 인한 병 ③ 전생의 업으로 인한 병이 그것이라 했다. 이에 일광스님은 말한다. “지수화풍에 의한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으나, 귀신으로 인한 병이나 업으로 인한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자(병의된 경우가 80%로 추정됨)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는 분
- 음식을 잘 못먹고 몸은 아픈데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없는 분
-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루게릭병, 간질병, 희귀병 환자 등 불치병
- 8세 미만의 자폐증,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다운증후군 환자

환자 및 가족에게 약사보살님의 가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약사암 T. 02)741-7679, 743-7679